

이 보도자료는 2024. 4. 28.(일) 0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4. 4. 26.(금)

자료문의 : 과학수사부

전화번호 : 02-535-9484

주책임자 : 법과학분석과장

제 목

##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요 우수 수사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① 수원지검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A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서,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이어 대표의 친형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 진행하여 60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 등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장비로서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임(대당 50억 원 상당)

특히 피의자들이 피해회사의 기술로 불법 제작한 21억 원 상당의 세정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현장에서 위 장비를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수출'을 한 후,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부품을 쪼개어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함에 따라 수원지검은 B회사 대표의 친형인 실운영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B회사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②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는 C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고,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한 C회사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위 진공펌프는 반도체 공정 중 CVD 공정(Chemical Vapor Deposition, 반도체용 화학가스를 반응시켜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박막을 씌우는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진공 흡입하여 제거함

이 사건은 피해회사의 창립멤버로 20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몰래 빼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해외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품(진공펌프 부품 10,132개)을 압수하였고, 피의자들이 숨겨둔 노트북, 외장하드를 압수하여 유출된 C회사의 기술자료를 회수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추가 범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빼돌린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기술마저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③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는, 경찰이 피의자가 범행 부인함에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2회에 걸친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하는 등 혐의를 명백히 밝혀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1차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2차 감정 결과 '피의자의 DNA형은 피해자의 팬티 흔적 2개 부위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함'이라는 의견을 회신받음

\*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대검의 DNA 감정결과를 제시하자 검찰에서 자백 진술

④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는 장도리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존속살해범(현재 1심 구속 재판 중)이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은닉교사죄로 인지 후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총 160회가 넘는 인터넷 검색기록(망치살인, 후두부 가격, 친족살해 등 직접적인 범행방법 검색) 등 주요 증거들을 확보하여 미리 계획한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상세한 선정사유는 '붙임' 참조

■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 기술범죄수사부	<p>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A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b>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b>에서, <b>B회사 대표</b>가 A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b>구속</b>되자, 이를 이어 <b>대표의 친형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 진행해 60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득</b>한 사실을 밝혀내어, B회사 대표의 친형인 실운영자 등 <b>4명을 구속</b>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B회사 직원 <b>5명을 불구속</b> 기소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회사의 설계자료를 부정사용하여 외관을 변경한 세정장비를 44억 원에 수출 <b>【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b></li> <li>○ A회사의 설계자료를 사용해 A회사 장비와 동일한 세정장비를 설계하고,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부품을 나누어 수출한 뒤 해외에서 조립·제작 <b>【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b></li> </ul>
	안동건 (35기)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친동생이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b>되자, 외관을 변경하거나 부품을 쪼개어 수출하는 방법으로 <b>재차 범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회사 대표 등이 「A회사 설계정보를 유출·사용하여 A회사 장비를 베낀 세정장비를 설계·제작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b>B회사 대표의 친형이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범행을 진행</b>, 재차 수출하여 대금 34억 원 취득(미수금 10억 원)</li> <li>- 한편,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추가로 세정장비 수출을 시도하였고, <b>검찰은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장비를 압수</b>함으로써 추가 유출을 차단</li> </ul> </li> <li>○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회사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장비를 요구받자, 16억 원에 A회사 장비를 그대로 베낀 기존장비의 핵심파트 수출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들은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국내 제작을 포기, <b>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한 뒤,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장비를 제작하는 등 범행 지속</b>하여 대금 14억 원 취득</li> </ul> </li> </ul> <p>※ 피고인들은 부품을 쪼개어 수출하는 경우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 현지 제작 계획을 수립·진행</p>
	박성현 (변3회, 現 서울중앙지검)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평택지청 형사3부	<p><u>첨단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u>하고, 중국에 <u>복제공장 설립을 시도</u>한 C회사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u>산업기술보호법위반</u>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p>
	이지연 (37기)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3.~5. 피의자들은 피해회사인 C회사의 전·현직 직원으로부터 첨단 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진공펌프 설계도면, 공장 레이아웃 공정배치도 등 기술정보 부정취득 <b>【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li> <li>○ '23. 5.~10. 피의자들은 부정취득한 C회사의 진공펌프 설계도면, 부품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여 복제품 개발에 사용 <b>【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li> </ul>
	강송훈 (변9회)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수사를 통해 <u>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업체의 전직 연구원이 주도한 첨단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범행의 전모를 규명함</u></li> <li>○ 적시에 압수수색하여 중국 수출을 위해 현장 보관 중이던 C회사의 진공펌프 부품(10,132개) 등을 압수하여 <u>추가 피해를 방지</u>하고, 숨겨둔 노트북, 외장하드를 압수하는 등 유출된 C회사의 기술자료를 회수하여 <u>추가 범행을 차단</u>하였음</li> <li>○ 피해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u>첨단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에서 복제품을 대량 생산</u>하고 기술을 <u>이전하기로 계획</u>한 사안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여 <u>피해의 확산을 방지</u>하고 <u>복제공장의 설립 등 추가 범행을 원천적으로 차단</u>함</li> </ul>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원주지청 형사1부	<u>경찰이 피의자가 범행 부인함에도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2회에 걸친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하여 혐의를 명백히 밝힌 사례</u>
	신건호 (35기)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6.경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 <b>【강제추행】</b></li> </ul>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경은, <u>피의자가 범행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 증거 없이 사건 송치</u></li> <li>○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요청으로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이후 피의자는 불출석하며 검사 거부하였고, <u>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DNA 감정 2차례 의뢰하여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u></li> <li>○ 대검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u>피의자는 번의하여 범행 자백</u></li> </ul>
	박유나 (변8회, 現 부산동부지청)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상주지청	<p><b>장도리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존속살해범</b>(현재 1심 구속 재판 중)이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b>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b>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영상녹화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b>총 160회가 넘는 검색기록 등 계획살인의 주요 증거를 확보</b>하여 <b>증거은닉교사죄로 인지 후 기소</b></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11. 6. 03:00경 피해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숙소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장도리로 피해자를 약 4회 내리쳐 살해한 후, 사체를 인근 야산에 매장 <b>【존속살해, 사체은닉】</b></li> <li>○ '23. 11. 12. 09:30경 상주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친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말하여, 누나들로 하여금 피의자 집에 있는 주요 증거인 컴퓨터를 누나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도록 함 <b>【증거은닉교사】</b></li> </ul>
	김상현 (37기)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디지털 포렌식 결과, 총 166회 인터넷 검색기록, 총 780회 게시글 접속기록, 밧줄(아파트 7층에서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이동) 구입 내역 등 확인</u></li> <li>- '망치 살인', 'how to kill with hammer', '친족살해', '후두부 가격' 등 모두 직접적인 범행방법을 검색한 기록으로, 특히 범행 3일 전 검색 집중</li> <li>- 수사결과 확인된 존속살해 범행경위와 검색내용 모두 일치</li> <li>※ 피의자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나(계획 범행 부인), 위 증거들에 의해 <b>계획범행임을 명확히 입증함</b></li> </ul>
	하경준 (변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계좌거래내역 추가로 제출받아 피의자의 종전 변소 탄핵</li> <li>-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10년 이상 용돈, 등록금 등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 확인</li> <li>○ 기소 이후에도 유족 면담으로 추가증거 확인 후 <b>디지털 포렌식 분석, 영상녹화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계획살인임을 명확히 규명</b>하고, <b>사법질서 저해범죄(증거은닉교사)를 추가 인지</b>하여 기소</li> </ul>